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연구

지강이*

- I. 머리말
- II. 양식적 특징 및 제작 시기
- III. 보리사지와 불상 봉안처 추정
- IV. 제작배경
- V. 맺음말

I. 머리말

보물 제731호로 지정된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도 1, 2)은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 보리사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에 있으며, 불상은 대좌를 갖춘 금동여래입상으로 현재 광배는 결실되었고, 상의 뒷부분은 뚫린 상태이다(도 3). 출토위치가 정확하고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의 특성을 잘 갖춘 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개설서²와 소장 박물관 도록³ 등에 불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¹ 1948년 경남 의령군 보리사지에서 당시 지역 경찰서장에 의해 발견된 상으로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이 1981년에 수집하였다.

² 광동석, 『금동불』(예경, 2009), pp. 202-203.

³ 동아대학교박물관, 『名品100選』(2009);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불교미술』(2012);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東亞의 국보·보물』(2014).

있는 정도이다. 좀 더 구체적인 조사로는 2014년에 실시된 유물 실측보고서⁴가 있다. 보리사지여래입상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통일신라 금동불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활발한 편으로 최근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금동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비롯하여⁵ 금동불 크기에 따른 용도와 기능을 밝히거나⁶ 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에 대한 연구⁷가 이루어지는 등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대 금동불⁸은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명문이 적혀있는 사례가 적어져 제작배경 및 목적을 알기 어려운 작품이 많다. 그

러나 8세기 중후반부터는 금동불의 수가 급증하는 점이 주목되며, 보살상보다는 여래상이, 좌상보다는 입상이 많이 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대 금동불 연구 토대 위에 보리사지여래입상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알아보고 보리사지여래입상과 같은 금동불이 많이 제작된 원인과 봉안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이 출토된 경상남도 의령군은 국보 제119호인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입상>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여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령지역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는 이 보리사지여래입상이 유일하여 이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작은 소형금동불 하나로 그 지역의 불교신



도 1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26cm, 경남 의령출토,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보물 제731호(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동아의 국보·보물』, 2014)
 도 2 (도 1)의 도면(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 실측 및 제도보고서』, 2013)
 도 3 (도 1)의 뒷면(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동아의 국보·보물』, 2014)

4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 실측 및 제도보고서』(2013).

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발굴출토품 신라의 금동불』(2011).

6 김동하, 「경주 황룡사지 출토 불상의 몇 가지 문제」, 『고문화』 82 (2013).

7 金聖蠟, 「통일신라~고려 전기 탑내 봉안 불상의 성립과 배경 - 조탑공덕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30 (2016); 陳政煥,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出土品の 特徴과 性格」, 『전북사학』 45 (2014).

8 백률사금동약사불과 같은 대형금동불이 아닌 보리사지금동여래입상 크기와 유사한 중소형금동불을 대상으로 말하고자 한다.

양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의 전반적인 불교 흐름 속에 의령 지역의 불교 신앙적 배경을 찾아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양식적 특징 및 제작 시기

1. 현상 및 특징

보리사지여래입상은 밀랍을 이용하여 원형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입혀 외형을 만든 다음 불에 구어 밀랍을 빼 낸 공간에 늦쇠물을 주입하는 실납법으로 만들어졌다. 불신과 대좌의 상·중대, 하대와 기단 등 3개를 별도로 주조하여 불신은 상대에 끼우고, 중대 밑면은 하대 윗면에 끼워 고정하였다. 불신은 내부가 막힌 통주식이 아닌 중공식 주조를 이루고, 일반적으로 뒷면에 내형토를 고정시키기 위한 틀고정쇠와 내형이 연장되어 외형과 결합되는 부분인 주조구멍 즉 폭치를 설치하는데,⁹ 보리사지여래입상은 뒷면 내부 전체를 노출하여 중공식 주조의 별주식 결합방식을 취한 편불화된 금동불이다. 편불이란 판불¹⁰과는 달리 양감이 거의 없어 편평해지는 불상을 말하며, 특히 불상 뒷면의 주조구멍이 너무 커져 불신 뒷면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불상들도 포함하여 부르기로 한다.

상의 중량은 475g이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¹¹

〈표 1〉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의 규격

구분	분류	크기(cm)	구분	분류	크기(cm)
불신	총 높이	26	대좌	총 높이	8.2
	상 높이 (정수리~발끝)	17.8		상대 높이	2
	이마선~턱	1.7		중대 높이	2.1
	귀~귀	2.5		하대 높이	1
	어깨너비	5.4		기단 높이	3.1
	상두께(가슴)	0.3		대좌 최대너비	8

⁹ 김동하, 「신라 소형금동불의 제작기법과 그 전개양상 -영주 속수사지 출토 금동불상군을 중심으로-」, 『신라의 금동불』(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p. 238.

¹⁰ 금동판을 만들어 이를 압출하여 제작한 불상을 지칭하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안압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인 〈금동삼존판불〉을 들 수 있다.

¹¹ 연구자인 지강이가 실측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통일신라시대 금동불 크기는 10~50cm 내외의 것이 가장 많으므로¹²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일반적 크기에 속하며 특히 다른 상들에 비해 대좌가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육계를 포함한 머리 길이가 약 4cm이고, 약 1.7cm인 얼굴 길이에 비해 신체가 긴 장대한 불신이다. 넓적한 방형의 얼굴과 넓고 둥근 어깨에서 양감을 느낄 수 있지만 측면에서 보면 상은 반듯하게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하여 측면과 뒷면에서는 양감을 거의 볼 수 없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얼굴보다는 신체의 양감이 점차 줄어들어 편불화 경향을 나타내면서 법의 옷주름도 양각이 아닌 음각선으로만 표현하여 양감과 입체감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얼굴은 넓적한 방형으로 길게 선각된 눈썹과 그 아래 코로 선각이 하나 더 이어져 이중눈썹을 이룬다. 두툼한 눈두덩이 아래의 눈은 거의 직선으로 음각하였으며¹³ 인중은 짧고 그 아래의 입술은 코의 너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입술 아래를 움푹 들어가게 하여 턱과 뺨에서 양감이 느껴지며 짧은 목에는 삼도가 아닌 2줄의 선이 있다. 양쪽의 큰 귀는 넓고 평평하나 귀 안의 표현은 없다. 머리에는 마모되어 거칠기는 하지만 나발의 흔적이 없어 민머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머리 정상부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큰 육계가 있다. 육계에도 마모가 심하여 마치 이중육계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끝이 뾰족하다.

불신을 보면 넓고 둥근 어깨와 약간 튀어나온 배에서만 볼륨감이 느껴지고, 이외에는 거의 평평하다. 양 어깨에 걸쳐진 통견식 대의는 양다리 전체에 걸쳐 흘러내리는 U자형 주름을 이룬다. U자형 주름은 음각의 이중선이고, 맨 아래와 아래에서 위로 3번째 주름 사이에는 3개의 반원형을 연결한 능선을 따로 나타내었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호류지현납보물 153호 동조여래입상>(도 4, 5)은 양각의 법의 주름 사이에



도 4 <호류지현납보물 153호 동조여래입상>, 飛鳥(7세기), 높이 29.7cm, 도쿄국립박물관(도쿄국립박물관 홈페이지¹⁴)

도 5 (도 4)의 법의 부분(도쿄국립박물관 홈페이지)

¹² 김동하, 앞의 글 (2013), p. 66.

¹³ 이와 같은 넓은 눈두덩이와 옆으로 긴 직선의 눈을 가진 금동불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강원도 원주출토 금동여래입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21.3cm의 <금동여래입상> 등을 들 수 있다.

¹⁴ <http://www.tnm.jp/>

구불한 음각선을 넣어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보리사지여래입상의 능선도 이와 같이 옷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3개의 능선 주름은 양 다리에 대칭을 이루고 있어 사실적이기 보다 하나의 장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현실감이 없다. 사선으로 걸친 승각기는 끈으로 묶어 양 매듭 끝자락을 삼각형으로 펼쳤으며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에는 반원의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는 통일신라 하대의 불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표현으로 <부석사 자인당 석조여래좌상>(도 6, 7)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안압지출토 금동비로자나불입상>(도 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강원도 원주출토 금동여래입상>(도 9)¹⁶ 등에서도 나타난다. 수인은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올려 좌우가 바뀐 시무외·여원인이다. 양 손 끝은 결실되어 손가락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양 손바닥이 정면을 향해 보이고 있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의 대좌는 상대와 중대, 하대,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는 7엽의 앙련좌이지만 연꽃은 꽃잎 끝부분만 나타냈을 뿐 다른 표현은 없다. 중대는 폭이 좁고 긴 원통형을 이루며 하대와 중대 사이에는 얇은 단이 둘러져 있다. 7엽의 복련좌를 이룬 하대에는 각 연잎마다 귀꽃



도 6 <부석사 자인당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 상 높이 87cm, 경북 영주시 부석사, 보물 제1636호(문화재청 홈페이지)¹⁵
 도 7 도 6의 승각기 부분(문화재청 홈페이지)



도 8 <금동비로자나불입상>, 통일신라, 높이 21cm, 경주 안압지출토, 국립경주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도 9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15cm, 강원도 원주출토,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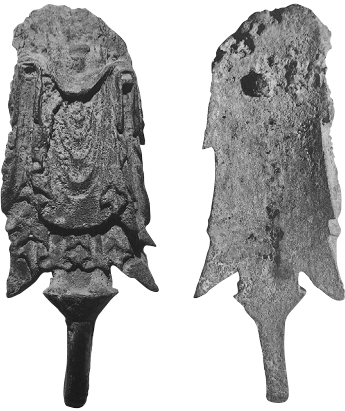
¹⁵ <http://www.cha.go.kr/>

¹⁶ 승각기 가장자리 띠만이 아니라 법의 가장자리에도 반원이 연결된 꽃문양들이 음각되어 있다.

이가 있었던 흔적이 있으며 양련과 같은 연꽃잎 끝부분 표시는 없고 단순화되었다. 기단은 칠각을 이루며 넓은 타원형의 안상이 있는데 모양은 일정치 않으며 칠각의 모서리도 많이 마멸되어 반듯하지 않다. 광배는 결실되어 현재 없으며 광배를 꽂기 위한 꼬다리는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¹⁷

2. 제작 시기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편불상이면서 긴 신체 비례, 선각의 옷 주름과 좌우가 바뀐 수인,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의 꽃문양 등이다. 편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황룡사지 서금당지에서 출토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황룡사지 금동여래입상>(도 10)을 들 수 있다. 이 상은 대좌와 불신을 함께 주조한 통주식으로 광배를 붙이기 위해 배면을 만들지 않았음을 남아있는 광배 꼬다리로 짐작할 수 있다. 편불상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9세기 말 이후 보다 많이 제작되어¹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감은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¹⁹과 국립



도 10 <금동여래입상>, 삼국, 높이 20cm, 경주 황룡사지출토, 동국대학교박물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지역 발굴출토품 신라의 금동불』, 2011)



도 11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14.9cm,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도 12 (도 11)의 뒷면(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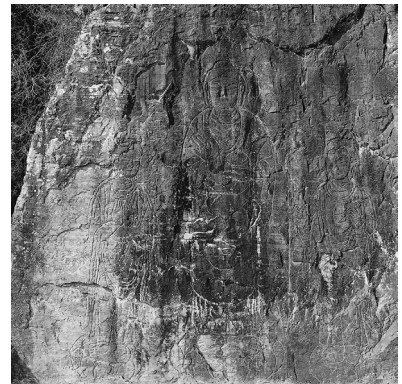
¹⁷ 광배를 걸기 위한 꼬다리가 떨어졌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하나 현재 확인이 어렵다.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14.9cm의 <금동여래입상>(도 12)과 같이 꼬다리부착면을 넓게하여 불신 배면에 꼬다리를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¹⁸ 崔聖銀,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 -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출토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8 (1997), p. 17.

¹⁹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1), p. 90의 도 36번, 높이는 9.6cm이다.

중앙박물관 소장의 <경남 산청출토 금동여래입상>²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14.9cm의 <금동여래입상>(도 11, 12)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불상은 시기가 내려갈수록 양감이 떨어지며 왜소화 되는데 이는 석불, 금동불 등 재료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특히 금동불의 경우 초기에는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출토 금제여래좌상과 입상처럼 불상 뒷면까지 충실히 메워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한 반면, 시기가 내려갈수록 불상 배면의 주조구멍은 점점 커지면서 메워지지 않은 채 뚫려있게 된다. 이러한 주조구멍은 초기에는 불신 또는 머리부분에만 있다가 이후 머리와 불신으로 확대되며, 통일신라 하대 말기에는 불상 뒷면 전체가 주조구멍이기도 하고, 보리사지여래 입상처럼 뒷면이 편불화되기도 한다. 불상 뒷면의 주조공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광배로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동을 아끼기 위한 방편, 대량 제작에 의한 제작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보리사지여래입상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황룡사지출토 금동불(도 10)처럼 시대가 이른 상도 편불화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광배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조공을 크게 제작해도 무방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한편, 동을 아끼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신라 하대에 장보고 선단의 몰락과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해상중계 무역을 장악한 장보고 선단은 중국에서 대량의 동전을 확보하여 신라와 일본 사찰에 공급하였으나 841년(문성왕 3) 장보고가 죽은 후, 동전의 수급이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주장²¹을 감안하면 시기가 떨어질수록 불상배면을 만들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과 부합된다. 또한 8세기 이후 급증하는 금동불을 보면, 대량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이는 당시 불교신앙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²²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통일신라 조각의 최전성기인 8세기를 지나 9세기가 되면 비록 마애불이지만 801년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도 13)과 <경주 남산 두대리 마애불>과 같이 얼굴은 양감 있게 입체적으로 나타내지만 불신과 옷주름은 선각으로 제작되



도 13 <함안 방어산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통일신라, 본존높이 450cm, 경남 함안군, 보물 제159호(문화재청 홈페이지)

²⁰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2008), p. 216의 도 122번. 소장번호는 신수 001549번이다.

²¹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p. 78.

²² 금동불 증가는 소비자 증가와 맞물리는 상황이므로 당시 불교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4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 14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14.2cm, 경북 점촌 신기동출토,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도 15 (도 14)의 뒷면(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도 16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17cm, 경북 칠곡출토, 국립경주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도 17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14cm, 충북 괴산 사담리출토,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금동불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8세기 통일신라 금동불의 옷주름은 대부분 양각으로 조각하였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불상 뒷면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경북 점촌 출토 금동여래입상>(도 14, 15)과 같이 음각선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경북 칠곡 출토 금동여래입상>(도 16)과 같이 법의 주름의 아래부분은 양각으로, 윗부분은 음각선으로 나타내어 양각과 음각선 표현을 혼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시기가 떨어지면서 양각의 입체적인 옷주름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충북 괴산 사담리출토 금동불>(도 17)처럼 음각선으로 처리한 평면적인 옷주름으로 변화된다. 선각 옷주름의 금동불 중 <강원도 원주출토 금동여래입상>(도 9)은 승각기에 격자문을 넣고, 대의 양 깃과 승각기 가장자리 띠에 꽃문양을 넣어 장식성이 강하고 화려하다. 특히 양다리 각각 U자형 옷주름이 있고, 허벅지 부근의 주름은 양쪽다리에 각기 다른 주름을 넣어 자연스럽다. 이에 비해 보리사지여래입상의 주름은 간략하고, 다리 사이 법의의 반원형 주름은 자연스럽지 않고, 대칭적이다. 특히 얇은 선각으로 이루어진 옷주름 표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16.3cm의 <금동여래입상>²³과 상통하여 옷주름의

²³ 소장번호는 본관 000362번이다.

경직화가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리사지여래입상처럼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에 꽃문양을 새긴 불상은 신라 하대인 9세기부터 볼 수 있으며 이는 충북 청주시 <용화사 석조삼존불입상 본존불(보물 제985호)>과 같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²⁴ 보리사지여래입상의 승각기를 묶은 띠 매듭은 둥근 원형으로 작게 표현한 반면 매듭 끝자락은 삼각형으로 크게 새겼다. 이러한 표현은 금동불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경북 출토 금동여래입상>과²⁵ <강원 강릉 한송사터 출토 금동여래입상>처럼²⁶ 양각으로 새겨진 매듭과 굵은 끈 형태의 끝자락이 보인다. 그러나 보리사지여래입상이 특별히 매듭 끝자락을 삼각형으로 한 것은 법의 세부표현이 모두 입체감 없이 선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보완 조치로 끝자락이나마 넓게 펼쳐 강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보리사지여래입상과 같이 수인의 좌우가 바뀐 불상은 <예천 본동리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하여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등의 석조불상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14.9cm의 <금동여래입상>(도 11)과 높이 11.8cm의 <금동여래입상>²⁷ 등 금동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신라 하대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송대 불화 중 아미타상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일본은 정토사 아미타삼존상을 비롯한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작례가 많아²⁸ 통일신라만이 아닌 동아시아의 시대적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9세기 이후에도 많이 제작되었음이 짐작된다.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의 대좌는 중대 없이 상대와 하대 즉 양련과 복련이 맞붙여 있는 예가 많고, 중대가 있을 경우 아주 낮아 안정감 있게 제작되는 편이다. 그러나 시기가 내려갈수록 보리사지여래입상의 대좌처럼 하대에 귀꽃이가 붙여 장식성이 강하고 팔각기단의 안상을 새긴 화려한 대좌가 증가한다. 이와 상통하는 대좌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경주 안압지출토 금동여래입상>²⁹ 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충남 금산 음지리출토 금동여래입상>(도 18) 등이 있으며, 특히 음지

²⁴ 통일신라시대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18.2cm의 <금동여래입상>의 승각기 가장자리 띠는 양각으로만 처리되어 문양이 없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경북 달성출토 금동여래입상>에서는 마치 프릴과 같은 문양을 양각으로 나타내거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안압지출토 금동여래입상>과 같이 음각의 격자문을 새기는 등 꽃문양 이전에는 다양한 문양이 나타난다.

²⁵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8), p. 193의 도 99. 소장번호는 덕수 006124번이다.

²⁶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8), p. 218의 도 124. 소장번호는 덕수 002346번이다.

²⁷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8), p. 192의 도 98. 소장번호는 덕수 003855번이다.

²⁸ 光森正士·岡田健, 『佛象彫刻の鑑賞基礎知識』(至文堂, 1996), p. 41.

²⁹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8), p. 208의 도 114. 높이는 17.2cm이다.



도 18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높이 24.8cm, 충남 금산 음지리출토,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도 19 <금동여래입상>, 나말여초(10세기), 높이 13.1cm,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전북 익산시 심곡사(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³⁰⁾)

리출토 금동여래입상의 가늘고 긴 중대는 보리사지여래입상의 중대와 닮았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의 대좌는 중대가 높아 안정감이 부족하고 상대의 양면과 하대의 복면에는 음각선의 연꽃잎 표현조차 없어 절제되고 간략화되었다. 이러한 간략화 현상은 기단에서도 확인되는데 보리사지여래입상의 기단은 일반적인 팔각기단이 아닌 칠각기단이다.

이상과 같이 보리사지여래입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불상뒷면에는 주조구멍이 커진 것이 아니라 전혀 만들지 않은 편불로 불상의 양감이 반으로 줄고, 음각선으로 표현된 법의와 주름, 대좌에 귀꽃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9세기대의 불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의 꽃문양과 삼각형으로 펼쳐진 승각기 매듭 끝자락, 법의 주름 안의 대칭을 이루는 3개의 능선 옷주름과 중대가 높은 대좌 등에서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형식화와 장식화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의 꽃문양과 좌우가 바뀐 수인은 9세기를 지나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특징이다. 아울러 보리사지여래입상과 같이 반으로 자른 듯한 편불로 제작된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여래입상>(도 19)은 넓은 얼굴과 직선의 눈,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의 꽃문양 등이 보리사지여래입상과 유사하여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이러한 양식이 이어지는 것을 확

³⁰ <http://jeonju.museum.go.kr/>

인할 수 있다.³¹ 그러나 보리사지여래입상은 방형의 얼굴과 두툼한 눈두덩이, 넓고 두꺼운 어깨에서 양감이 나타나며 정면에서 봤을 때 편불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신체비례에서는 작은 머리에 비해 신체가 길어 801년작의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과 <치인리 마애불입상> 등과 같이 9세기대 석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대한 불상의 비례와 같으며 불상대좌의 중대 높이를 높여 입상의 모습을 더욱 강조한 조형적인 장치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9세기 이후 금동불의 대좌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출토 금동불>³²과 <심곡사 금동여래입상>처럼 기단은 원통형을 이루며 안상 없이 보다 간결하게 조성되고 있으며, 금동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주조구멍이 불상뒷면 내부 전체를 노출하는 예가 증가한 반면³³, 고려시대에는 주조구멍이 메워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리사지여래입상의 제작 시기는 9세기 후반으로 상정된다.

Ⅲ. 보리사지와 불상 봉안처 추정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자굴산 중턱에 자리 잡은 보리사지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190호 지정되어 있으며, 기록과 남아있는 축대를 통해 사역의 중요성과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보리사지에 대한 문헌기록은 조선 1530년(중종 25)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의령현 불우조에 “菩提寺, 楊泉寺 모두 자굴산에 있다.”라 하였고, 1765년(영조 41)에 완성된 『輿地圖書』에는 “菩提寺 今無”라 하여 보리사가 지금은 없다고 하였으나 김정호가 1856-1861년 사이에 제작한 『동여도』에는 보리사가 표시되어 있어 1856년 이전에는 다시 재창된 것을 알 수 있다. 보리사가 폐사된 것은 아마 임진왜란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다시 보리사를 재건한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에 간행된 『宜春誌』에는 보리사가 보이지만, 1937년에 간행된 『嶺南誌』에는 보리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때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⁴ 현재 축대만 있고, 논밭으로 변한 보리사지에서 불상이 정확히 어느 곳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금동불의 크기가 10cm이하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휴대할

31 편불상이며 선각의 옷주름, 원통형대좌 등으로 미루어 10세기 초의 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陳政煥, 앞의 글(2014), pp. 437-438.

32 제작 시기는 나말여초인 10세기 초로 보고 있다. 최성은, 앞의 글(1997), p. 24.

33 김동하, 앞의 글(2011), pp. 248-249.

34 구산우, 「경남 의령·창녕·함안지역의 사원과 폐사」 『경남의 사지Ⅰ-의령·창녕·함안의 석탑 중심으로-』 (2009), pp. 246-247.

수 있는 크기이므로 所持佛 역할을 하였을 거라는 기존의 연구³⁵를 참고해보면,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전체 20cm가 넘는 비교적 큰 불상인 점에서 사찰의 건물 혹은 석탑 안에 안치되었을 2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 사찰지에서 출토된 금동불의 크기는 분황사 서쪽 건물지에서 출토된 3.6cm의 금동불에서 굴불사지 사면석불 부근에서 출토된 12cm의 금동불까지 크기와 상태의 편차가 크다.³⁶ 석탑에 봉안되는 불상의 경우, 사리와 함께 봉안되는 상과 별도로 봉안되는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8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으로 사리와 별도로 상이 안치되는데 대부분 봉안을 위해 따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불상을 봉안하여 조형성이 떨어지며³⁷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³⁸이다. 아울러 이 시기 이후 석탑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불상은 모두 사리와 별도로 안치되고, 사리와 불상이 함께 안치되는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³⁹ 그러므로 큰 규모에 우수한 조형성을 지닌 9세기 후반의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석탑 안 사리장엄구용보다는 건물 안 예배용으로 봉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보리사지여래입상을 입상으로 주조한 이유는 좌상보다는 입상이 주조하기 쉽고, 입상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 선호했을 거라는 기존 해석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⁴⁰

IV. 제작배경

1. 의령군의 지역적 특색

의령군은 현재 동으로는 창녕군과 함안군, 서로는 합천군과 진주시에 둘러싸여 있으며 6가야 중 아라가야 지역에 해당되며 주변 지역의 속군으로 병합되어 같은 행정권역을 이루었다. 특

³⁵ 김동하, 「新羅 統一期 小金銅佛像의 類型과 用途에 관한 試論 -경주지역 발굴출토품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8 (2014), p. 29.

³⁶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p. 42-158.

³⁷ 金聖蠟, 앞의 글, pp. 51-53.

³⁸ 통일신라시대 석탑 안에 봉안된 불상들의 크기를 보면,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의 여래입상은 14cm, 좌상은 12cm으로 사리와 함께 봉안되는 불상 중 큰 불상에 속한다. 이를 제외하면, 불국사 삼층석탑출토 불상 4.6cm, 경주 천관사지 탑지출토 불상 5.1cm,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출토 불상 6.9cm 등 주로 4-6cm 내외 크기이며 모두 사리와 따로 불상이 봉안되었다.

³⁹ 金聖蠟, 앞의 글, pp. 63-67의 별첨(표 4)참조.

⁴⁰ 김동하, 앞의 글 (2014), p. 17.

히 의령·함안의 아라가야와 창녕의 비화가야가 555-560년 전후 신라에 복속된 후⁴¹, 진흥왕이 561년 창녕에 척경비를 세움으로서 이 지역은 신라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상에 천불을 유포하기 위해 539년에 제작된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입상>이 의령군 대의면에서 발견되어 이 지역의 불교 전파가 이른 시기부터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⁴² 삼국시대의 의령은 아라가야였지만, 신라에 복속된 후 함안군의 영현으로 경덕왕대 의령현으로 불리졌다.⁴³ 그러므로 통일신라 당시 의령은 함안군에 속했고, 함안군은 靑州의 속군이였다. 九州 중 하나인 청주는 758년(경덕왕 16)에 康州로 이름을 바꾸었으나⁴⁴ 해공왕대 관명 복고 시 강주를 다시 청주로 바꾼 듯하며 州治는 지금의 진주였으며, 남해, 하동, 사천, 함안, 거제 등의 11개 군과 27현이 있었다.⁴⁵ 따라서 의령은 함안군에 속한 현이면서 진주의 관할 현이었다(도 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령이 속한 함안군과 청주 지역은 신라 하대부터는 특히 중앙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돋보이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함안 방어산에는 801년(애장왕 2) 소성왕과 그의 아들인 애장왕을 위해 약사삼존상이 만들어졌고,⁴⁶ 지방의 군사조직인 十停이 설치되어 군사적 지



도 20 의령군과 주변 지역

41 후보돈은 아라가야의 멸망시기를 창녕의 비화가야와 같은 시기인 555년 전후로 보고 있는 반면, 윤선태는 아라가야가 멸망한 시점을 560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朱甫暎,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1982), pp. 187-188; 윤선태, 「咸安 城山山城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2012), p. 149 참조.

42 박경원은 불상 발견 지역이 6.25사변 때 공산군 대부대의 본거지로 장기 주둔하여 이 때 불상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하였으나(박경원,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상의 출토지」, 『고고미술』 제5권 제6.7호 [1964], pp. 528-529) 의령이 가야시기부터 신라에 복속된 후에도 지리적 중심지였음을 감안하면 삼국시대에 불상이 전해졌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43 『三國史記』, 권34 잡지3 지리1 함안군조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 一云阿郡校勘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宜寧縣, 李校勘獐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44 『三國史記』, 권34 잡지3 지리1 강주조 “康州, 神文王五年, 唐垂拱元年, 分居陞州, 置靑州, 景德王改名, 分晉州, 領縣二”

45 『三國史記』,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6년조 “冬十二月·靑州爲康州, 領州一·郡十一·縣二十七”

46 함안 방어산 마에약사여래삼존입상으로 보물 제15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논문으로는 池江伊, 「咸安 防禦山 藥師三尊像에 관한 연구 -제작배경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9 (2005) 참조.

방통치의 거점지역이었다.⁴⁷ 당시 면적이 넓은 漢州를 제외한 나머지 州에 하나씩의 停을 두었고, 정치·경제적 중심 지역인 각 주에 정을 둔 점을 감안하면 청주(현 진주) 중 특히 함안의 지리적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855년(문성왕 17)에 창건된 「昌林寺無垢淨塔」 명문에 의하면 조탑에 참여한 사람 중 함안군의 군통 敎章이 있어⁴⁸ 중앙의 주요 불사에 함안군에 파견된 승려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여 9세기부터 함안군과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함안군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799년(소성왕 1) 청주 거로현(현 거제시)을 학생녹읍으로 삼았다. 학생녹읍은 渡唐 유학생이나 내성의 학생을 위해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을 유학 후 국가 중요 업무에 위임하여 왕권 중심의 관료체제를 운영하기 쉽도록 한 제도였기에 이를 청주에 설치한 것은 그만큼 왕권강화를 위한 중요 지역으로 생각했다는 뜻이다.⁴⁹ 이후 836년 신라의 집사성이 일본의 太政官에게 보낸 문서를 청주에 보내고,⁵⁰ 845년 강주(청주)에서 다자이후(大宰府)로 문서를 보내는 등 9세기 이후 청주는 대일 외교의 관문역할을 수행하였다.⁵¹ 한편, 2004년에 발견된 경남 사천의 신라 비편에 “神述時州總官蘇干”의 구절이 있는데 이는 김신술이 혜공왕대에 소관의 관등으로 강주 지역의 총관을 지냈음을 알려준다.⁵² 김신술은 훗날 원성왕의 장인이 되는데 그가 강주총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성한 이 지역의 세력기반은 뒷날 사위인 김경신(원성왕) 즉위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⁵³ 따라서 의령과 함안군이 속한 청주지역은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교역의 중심지이며, 정치적·경제적 주요 지역으로 부상된 것을 살필 수 있다.

47 『三國史記』, 권40 잡지9 직관 하조 “十停或云三千幢…五日召參停”; 『三國史記』, 권34 잡지3 지리1 함안군조 “咸安郡…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召夕縣 景德王改名”.

48 「昌林寺無垢淨塔誌」(855년) “…專知 修造僧 康州 咸安郡統 敎章”.

49 金昌錫, 「靑州의 祿邑과 香徒 - 신라 하대 지방사회 변동의 일례-」, 『新羅文化』 26 (2005), pp. 143-145.

50 『續日本後紀』 권5 承和 3년 12월 정유조 “新羅國執事省牒日本國太政官紀三津詐稱朝聘兼有贊職…事須牒太政官并牒靑州”.

51 『續日本後紀』 권15 承和 12년 12월 무인조 “十二月甲戌朔戊寅 大宰府馳驛言 新羅人齋康州牒二通 押領本國漂蕩人五十餘人來著”.

52 金福順, 「『삼국유사』 「무장사 미타전」 조의 몇 가지 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p. 309.

53 김창겸, 「최근 발견된 사천신전리신라비 검토」,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pp. 95-142.

2. 사회적·신앙적 배경

신라 하대는 지방 호족들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시기로서, 청주의 대표적인 호족으로는 윤웅, 왕봉규, 유문, 흥달 등 4명을 들 수 있다.⁵⁴ 이 가운데 왕봉규는 신라왕실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만큼 가장 유력한 호족이었다. 왕봉규에 관한 기사를 보면, “경명왕 8년 정월에 후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泉州節度使 왕봉규 역시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⁵⁵하고, 이어서 “927년(경애왕 4) 3월에는 후당으로부터 懷化大將軍의 관직을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왕봉규가 사신 林彦을 보내 조공하였다.”⁵⁶고 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왕봉규가 ‘천주절도사라는 직함을 가진 점이다. 천주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지금의 의령군 부림면 일대인 宜桑縣의 옛 지명인 辛余縣의 별칭으로 나오고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에는 新繁縣으로 칭해졌는데⁵⁷ 의령현에서 동북쪽으로 60여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봉규의 직함에 포함된 천주는 의상현 지역에 한정하기보다 의령의 옛 이름이나 별칭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며⁵⁸ 924년 당시 왕봉규는 의령지역을 주근거지로 한 호족이다. 왕봉규가 후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면 의령은 내륙지방이므로 지리적 위치에서 보면 일찍부터 良港으로 기능해왔던 하동항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의령에서 하동에 이르는 교통로를 고려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산청지역을 포함하여 의령은 물론 하동, 산청까지 왕봉규의 세력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진주권역의 외곽지역을 지배하던 일개 호족에 불과한 왕봉규가 924년 신라왕실에 뒤이어 후당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9세기 말에 이르러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해안지역에서 성장한 지방세력들 가운데 조공사신을 파견한 예로는 왕봉규가 유일하며, 이는 왕봉규 자신의 독자성과 정치적 위상을 크게 떨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보리사지여래입상이 출토된 곳이 의령군이며 9세기 말기에 만들어졌다면 불상제작의 사회적 기

⁵⁴ 權惠永,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p. 318.

⁵⁵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0, 경명왕 8년조 “八年, 春正月, 遣使入後唐朝貢, 泉州節度使王逢規, 亦遣使貢方物”

⁵⁶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0, 경애왕 4년조 “唐明宗以權知康州事王逢規爲懷化大將軍, 夏四月, 知康州事王逢規, 遣使林彦校勸入後唐朝貢, 明宗召對中興殿, 賜物”

⁵⁷ 『三國史記』, 권34 지리지1, 강주조 “江陽郡 本大良(一作耶)州郡 景德王改名 今陝州 領縣三 … 宜桑縣 本辛余縣(一云朱烏村, 一云泉州縣) 景德王改名 今新繁縣”

⁵⁸ 金庠基,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 通交 - 특히 王逢規를 主로-」, 『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60), p. 3.

⁵⁹ 이현모, 「羅末麗初 晉州地域의 豪族과 그 動向」, 『歷史教育論集』 30 (2003), pp. 136-142.

반은 왕봉규와 같은 지역 호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보리사 이외에 있는 의령 지역의 다른 사찰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리사 남쪽의 의령읍에 있는 보천사는 수암사라고도 하며 통일신라시대 말 고려시대 초기작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보물 제373호)과 고려시대의 부도(보물 제472호)가 있다. 의령군 용덕면의 수도사에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와 고려시대의 부재들로 이루어진 석탑(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55호)이 있어⁶⁰ 현재 파악되는 의령군의 사찰은 늦어도 통일신라시대 후반부터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호족들과의 연관성을 상징할 수 있다.

한편, 보리사지를 포함한 청주 지역은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활발한 불교신앙 결사를 보여주는 곳으로 불교 신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천에서 발견된 신라비의 예와 『삼국유사』의 郁面婢念佛西昇조 이야기, 연지사종 주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공 왕대에 건립된 사천 신라비에는 了言大德을 중심으로 현령과 상촌주 등이 향도를 조직하였고, 국왕, 상대등과 같은 높은 관직자들이 기록되어 있어 중앙과 연결된 불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⁶¹ 옥면비 내용은 경덕왕대의 일로, 강주(진주)의 선사 수십 명이 서방정도에 뜻을 두고 주 경계에 미타사를 창건하고 만일을 기약하며 계를 만들었다. 이 때 阿干 귀진 집의 옥면이라는 계집종이 염불 왕생한 이야기로, 여기서 재가신자들이 주축되어 미타사를 창건하고 만일계를 결성하여 염불을 통한 왕생을 희구했던 것을 알 수 있다.⁶² 만일염불결사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아미타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결사 형태로 옥면비의 예가 최초의 사료에 해당된다.⁶³ 이러한 만일염불이 강주 즉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이 주목된다. 또한 833년(흥덕왕 8) 청주에서 연지사가 종주되었는데 이 때 든 비용은 2,200석이며 인력은 5백여 명이 동원되어 재지세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사로 추정된다.⁶⁴ 이러한 신앙 결사는 9세기 후반부터는 더욱 왕성해져 885년(헌강왕 11) 해인사에서는 대덕 결연과 현준이 화엄결사를 하여 왕실 주도의 신앙 결사도 청주에서 행해졌다. 신앙 결사는 진표의 점찰법회를 비롯한 법화경에 의거한 보살계 수지⁶⁵와 실천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의상의 화엄사상의 발전 등 특정 종파

⁶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사지 I -의령·창녕·함안의 석탑 중심으로-』(2009), pp. 15-45.

⁶¹ 채용석, 「한국 고대 香徒의 조직과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pp. 194-195.

⁶² 『三國遺事』 권5 감동7 郁面婢念佛西昇조 “景德王代康州 今晉州, 一作剛州, 則今順安, 善士數十人志求西方於州境 創彌陀寺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珠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立中庭隨僧念佛”

⁶³ 한보광, 「만일염불결사의 성립과 그 역할」, 『淨土學研究』 1 (1998), p. 66.

⁶⁴ 박용국, 「新羅 蓮池寺 鑄鐘佛事의 背景과 그 性格」, 『新羅史學報』 20 (2010), p. 248.

⁶⁵ 『입당구법순례기』에 의하면 엔닌은 839년 적산 법화원에서 낮에는 법화경 강의를 듣고, 밤에는 예불과 참회하는 신라인의 불경강의 의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형우, 「山東省 文登縣 赤山 新羅院의 性格」, 『民族文化論叢』 46 (2010), pp. 14-16.

나 경전에 의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반적인 불교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왕을 비롯한 귀족에서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여 결사하여 실천 수행을 하였다면 거기에는 造像이 필요하고, 비교적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형 금동불이 적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685년 諸國의 집에 불사를 만들고 불상 및 경전을 안치하여 예배공양토록 한 기록이 전한다.⁶⁶ 우리나라로부터 불상 및 경전을 받아들인 일본이 각 개인 사택에 불당을 만들고 불상 등을 안치하였다면, 당시 통일신라의 불교신앙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664년(문무왕 4)에는 사찰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였고,⁶⁷ 이러한 조치는 806년(애장왕 7)에도 내려져⁶⁸ 그만큼 통일신라시대에는 개인적인 불사는 물론 시주 및 공양 등이 활발히 행해졌음을 반증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많은 소형금동불이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 하대 실천신앙 결사가 많이 이루어진 의령이 속한 청주지역에 당시 시대적 지역적 신앙 특색을 반영한 불상이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이 아닌가 한다.

V. 맺음말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 말기 편불화된 금동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보리사지가 있는 의령군은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입상>이 발견된 곳으로 두 불상이 모두 소형금동불이며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나타난 것은 주목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리사지여래입상의 제작시기와 특징, 불상 봉안처 추정과 의령군 지역의 특색, 제작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전형적인 9세기말 금동불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편불이면서 선각의 옷주름과 좌우가 바뀐 수인,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의 꽃문양과 다리 부분의 법의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능선의 옷주름 등이다. 그러나 방형의 얼굴에 두꺼운 눈두덩이와 양감 있는 넓은 어깨, 장대한 신체 등의 8세기대 불상 모습이 남아있어 제작 시기는 9세기 말로 추정된다. 한편 보리사지여래입상과 같이 단독의 금동불입상은 8세기 이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배

66 『日本書紀』 권제29 天武天皇 14년 3월조 “壬申. 詔. 諸國每家作佛舍. 乃置佛像. 及經. 以禮拜供養.”

67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조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68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7년조 “下教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용으로 사찰뿐만 아니라 개인 사택에서도 봉안되어 경배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를 반증하는 것이 과도한 불사를 막기 위한 문무왕과 애장왕의 불사 금지령이라 할 수 있다. 보리사지가 있는 의령군은 9세기에는 함안군의 속현이었다. 함안군은 지방 군사조직인 十停이 설치된 곳이며, 801년에는 소성왕과 애장왕을 위한 약사삼존상 조성이 이루어졌고, 경주 창림사에 무구정탑이 조성될 때 함안군통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의령군이 속한 청주에 학생녹읍이 설치되고,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내는 등 9세기부터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지방으로 부상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호족들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그 중 왕봉규는 직접 당에 사신을 보내어 다른 호족과는 달리 독자성과 정치적 위상을 떨쳤고, 그의 활동 근거지가 의령인 점이 가장 주목된다. 한편, 청주에는 옥면비염불결사를 비롯한 향도결사를 통한 불교 신앙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진 곳으로 이에 따른 조상활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의령을 기반으로 두고 활약한 호족을 중심으로 불교신앙 결사에 의한 실천수행을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소형금동불이야말로 비교적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조상공덕이며, 이를 가장 잘 나타내어준 상이 보리사지여래입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_보리사지(Bori-sa Temple Site), 금동불(gilt-bronze Buddha statue), 의령(Uiryeong), 왕봉규(Wang Bonggyu), 신앙결사(faith association)

■ 투고일 2016년 8월 30일 | 심사게시일 2016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15일 ■

참고문헌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일본서기』
『속일본후기』
『입당구법순례기』

2. 한국문헌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강우방·곽동석·민병찬, 『불교조각 I』, 솔, 2003.
權憲永,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곽동석, 『금동불』, 예경, 200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사지 I -의령·창녕·함안의 석탑 중심으로-』, 200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발굴출토품 신라의 금동불』, 2011.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김동하, 「경주 황룡사지 출토 불상의 몇 가지 문제」, 『고문화』 82, 2013.
_____, 「新羅 統一期 小金銅佛象의 類型과 用途에 관한 試論 -경주지역 발굴출토품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8, 2014.
김복순, 「『삼국유사』 「무장사 미타전」 조의 몇 가지 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김창겸, 「최근 발견된 사천선진리신라비 검토」,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김창석, 「菁州의 祿邑과 香徒 -신라 하대 지방사회 변동의 일례-」, 『新羅文化』 26, 2005.
金聖蠟, 「통일신라~고려 전기 탑내 봉안 불상의 성립과 배경 -조탑공덕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30, 2016.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동아의 국보·보물』, 2014.
박용국, 「新羅 蓮池寺 鑄鐘佛事의 背景과 그 性格」, 『新羅史學報』 20, 2010.
이현모, 「羅末麗初 晉州地域의 豪族과 그 動向」, 『歷史教育論集』 30, 2003.

陳政煥,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出土品의 特徵과 性格』, 『전북사학』 45, 2014.

崔聖銀,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출토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8, 1997.

한보광, 『만일염불결사의 성립과 그 역할』, 『淨土學研究』 1, 1998.

국문초록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보물 제7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상은 상 뒷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편불상이 특징으로 광배는 없고, 칠각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보리사지는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보 제119호인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입상〉이 의령군 대의면에서 발견되어 의령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특색이 주목된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은 편불이면서 선각의 옷주름과 좌우가 바뀐 수인, 승각기 가장자리 띠 안의 꽃문양과 3단 연화대좌 등이 특징이다. 특히 장대한 신체와 양감 있는 넓은 어깨, 장대한 신체, 대좌의 귀퉁이 등 8세기대의 불상 모습이 남아 있어 제작시기는 9세기말기로 추정된다. 보리사지는 현재 축대만이 있어 정확한 불상의 봉안처를 알 수 없다. 다만 8세기 중반 이후 석탑 안에 봉안되는 불상은 소지불처럼 크기가 작고 조형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 보리사지여래입상은 석탑 안 사리장엄구용 보다 사찰 건물 내 예배용으로 봉안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리사지가 있는 의령군은 함안군의 속현이며 모두 청주(현 진주)에 속한다. 함안군에는 통일신라 군사조직인 十停이 설치되고, 801년에는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이 조성되는 등 9세기부터 중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주는 학생녹읍이 설치되고,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내는 등 다른 지역보다 중앙과 관련 있는 주요 지방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호족들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 중 왕봉규는 다른 호족과 달리 직접 당에 사신을 보내어 독자성과 정치적 위상을 떨쳤는데, 그의 활동 근거지가 의령인 점이 가장 주목된다. 한편, 청주에는 옥면비 엮불결사와 연지사종 주조, 사천 신라비에서 알 수 있듯이 향도 결사를 통한 불교 신앙활동이 가장 왕성히 이루어진 곳으로 이에 따른 조상활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리사지여래입상은 불교신앙 결사에 의한 실천수행을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심주체는 왕봉규와 같은 이 지역의 호족이라 생각된다. 소형금동불이야말로 비교적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조상공덕이며 이를 가장 잘 나타난 상이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이라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Gilt-Bronze Standing Buddha” from the Bori-sa Temple Site, Uiryeong

Ji Kang Yi*

The “Gilt-Bronze Standing Buddha” from the Bori-sa Temple Site, Uiryeong, which has been kept in the Dong-A University Museum, was made in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is Treasure No. 731. Without the back side of the statue, it does not have a halo but has a seven-angle lotus pedestal. Bori-sa Temple is situated in Garye-myeon, Uiryeong-gun, Gyeongnam Province, and it is also the same region, Uiryeong, where the “Gilt-Bronze Standing Buddha with Inscription of the Seventh Yeonga Year,” National Treasure No. 119, was discovered.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I reviewed the statue’s chronology and provenance, as well 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Uiryeong and its background.

In this respect, the Bori-sa Temple statu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ne-side-only sculpture, incised drapery lines, reversed mudra, flower pattern on the rim of the sash, and three-tiered lotus throne. As for its chronology, based on its stylistic features, such as wide shoulders, rounded body, and lotus throne, all of which retain the style of the eighth century,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hat the statue was made at the end of the ninth century before the Goryeo period. Lastly, the Bori-sa Temple site currently only preserves an embankment, so it i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place where the statue was originally enshrined. However, judging from the fact that Buddha statues enshrined in stone pagodas after the mid-eighth century had

*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a small scale and low quality, like a portable Buddha statue, the Bori-sa Temple statue appears to have been enshrined not in a pagoda but in a temple shrine for worshipping.

Uiryeong, where the Bori-sa Temple is located, belongs to Haman. Both Uiryeong and Haman were under Cheongju (present-day Jinju). In Haman, *sipjeong*, or ten private military troop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were established. In 801, the "Medicine Buddha Triad" was carved on Bangeo Mountain in Haman. These examples confirm that Haman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ninth century onward. Furthermore, Cheongju became one of the main local cities connec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not only because a national academy was built in the region but also because diplomatic documents to Japan were sent from this city. The local gentry thus formed a powerful political force. For example, Wang Bonggyu, unlike other gentries, sent an envoy to Tang China directly. This shows his independent and powerful political status. It is worth noting that his main political base was Uiryeong. In addition, Cheongju was the place where religious activities for Buddhism were actively practiced by local Buddhist associations, such as the Chanting Association for Rebirth in the Western Pure Land (as seen from the servant Ukmyeon's story). This probably led to the production of such Buddhist images as the Buddhist bell at Yeonji-sa Temple and the Silla stele from Sacheon. Therefore, it is probable that the Bori-sa Temple statue was made by Buddhist faith associations for their religious practice. The main principle would have been the local gentry class of the region, like Wang Bonggyu. A small-sized gilt-bronze statue is relatively easy to make for merit, and the best example of this is the "Gilt-Bronze Standing Buddha" from the Bori-sa Temple Site, Uiryeong.